

배포 2025. 08. 08.(금) 13:00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내, 군포산본 선도지구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체결

-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민기구 본격 운영·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내,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주거단지 재건축을 위한 특별정비계획 마련 추진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8일(금)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(통합9-2구역, 통합11구역)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협약은 군포산본 통합 9-2구역, 통합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단*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,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민주도·공공지원 통합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.
- * 「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」(25.3월 제정)에 근거,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구성된 주민대표단
- 이번 협약으로 △주민대표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·제시와 더불어 입안 제안 동의서 징구,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며, △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와 같은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사업비 지원 등 정비사업 전반에 조력자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.
- 협약식에는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과 군포산본 통합9-2구역 권성환 주민대표단장, 군포산본 통합11구역 백종철-서유경-임영학 공동대표단장 등이 참석했다.
- 이번 군포산본 업무협약에 이어, LH는 이달 중 분당 목련마을 주민 대표단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. 세 지구와 업무협약을 마친 뒤 연내 ‘특별정비구역 제안’을 목표로 지자체 사전자문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.

○ 현재 정비계획입안 예정(안)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면 △산본 9-2은 기존 1,862호에서 2,940호로 △산본11은 기존 2,758호에서 3,800호로 △분당목련은 기존 1,107호에서 2,226호로 총 3,239호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가능해 서울·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“정비사업에 대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”이라며 “통합정비사업의 성공적 선도 모델을 마련하여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신도시정비처 | 책임자 | 팀 장 | 박의호 | (055-922-4503) |
| | | 담당자 | 차 장 | 신지윤 | (055-922-4590) |